

# 예술인들 창작 열망 불 지핀다



대부분의 화가들에게 물감 등 작품 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올해 대폭 개정된 예술인 복지사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문체부, '2014 예술인 복지사업계획' 확정

복지 예산 38.5% 늘어난 199억7000만원  
창작 디딤돌,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변경  
생활고 예술인 3~8개월 월 100만원 지원

4인 가족의 가장인 화가 A씨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 2~3곳의 일자리를 전전한다. 목욕탕 청소, 식당 접시닦이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작품활동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선택한 고단한 삶이다. 그래도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작업실 임대료, 미술 재료비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남는 것은 50~60만 원 가량. 4인 가족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소장 조인호)가 지난해 발표한 '광주 청년미술인(30~40대)의 창작여건 실태조사'는 작가들의 열악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조사대상 청년작가의 56.6%가 월 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7%는 수입이 전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인 광주지역 미술인은 전국평균인 66.5%보다 높은 78.3%로 나타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에게 최대 8개월간 매달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예술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던 심의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대폭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예술인 복지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예술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8.5% 늘어난 199억7000만 원이다.

'창작 디딤돌' 사업은 올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1인 가족 기준 월 60만3000원, 2인 기준 102만7000원) 이하 예술인들로 한정한다. 소득보다 예술활동 실적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복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산은 54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같다.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월 100만 원씩 3~8개월간 지원한다. 지난해는 월 60만 원씩 최대 5개월이 지원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 교육 사업도 폐지한다. 장르별 협회·단체가 직접 설계 운영하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월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33억 원을 들여 예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기업, 농어촌 등과 예술인들을 연계해 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도 시행, 예술인들에게 6개월간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대부분 사업은 27일부터 시행되고 '예술인 교육 이용권'사업은 2월27일부터 시작된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은 홈페이지에서(www.kawf.kr)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 100만원 (지원기간) 3~8개월	1월27일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최소 10개 단체(1,000명) 단체당 최대 1억원	1월27일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110여 개 단체(550여 명) 단체당 1000~3000만원	1월27일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300명 이상·1인 최대 100만원	(교육기관) 1월27일 (예술인) 2월27일
예술인 파견 지원	수습기간: 월 20만원(2개월) 파견기간: 월 150만원(6개월)	1월27일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 계약, 신재, 저작권, 채플 등 (신고·조사·중재·소송) 수익배분 거부, 지원 등 법상 금지 (불공정행위)	(상담·컨설팅) 상시 (신고·소송) 2월28일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50%	1월27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1인 1회 최대 500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1월27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현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 2월28일까지 휴랑갤러리

### 달항아리 자연을 품다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순백의 달항아리에는 맑고 깊은 멋이 흐른다. 화려함 없이 수수한 백자 항아리는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깊은 울림을 준다.

백자 달항아리를 전면에 배치하고, 산, 강, 폭포, 달, 꽃, 새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내는 조문현 작가의 작품은 아름다움, 본연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조문현 작가의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전이 오는 2월28일까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하얀 달항아리와 함께한 풍경은 다채롭다.

노란 보름달이 뜨고, 양중맞은 새가 노래하고, 누군가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너고, 기묘묘한 봉우리에는 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문화예술학 석사 과정을 마친 조씨는 광주시 문화예술사 허백련특별상을 수상했다.

전통과 형상의 회화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61-139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어떤 작품들일까?

### 문학동네 한국문학전집 1차분 20권 발간

문학동네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문학동네 한국문학전집' 1차분 20권을 발간했다.

지난 20년간 문학을 둘러싼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문학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전반적으로 문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문학동네의 한국문학전집 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전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한글세대가 펴내는 한국문학전집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문학동네를 통해 독자와 만나온 한국문학의 빛나는 성취를 우선적으로 담았다. 또다른 특징은 1990년대 이후 크게 달라진 문학 환경에 적극 대응해온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문학동네는 다양한 발굴 채널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징후와 가능성을 실시간대로 포착하면서 문학의 영토를 확장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1차분 20권은 다음과 같다. ▲김승옥 '생명연습' ▲황석영 '개밥바라기밥' ▲박완서 '대단한 밥상' ▲이문구 '공산토벌' ▲김주영 '흙' ▲최인호 '검습환자' ▲이승우 '식물들의 사생활' ▲안도현 '연어·연어이야기' ▲신경숙 '외판방' ▲성석제 '왕을 찾아서' ▲윤대녕 '반달' ▲김소진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김연수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김훈 '칼의 노래' ▲은희경 '새의 선물'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 ▲김영하 '검은 꽃' ▲박현욱 '아내가 결혼했다' ▲전명관 '고래' ▲박민규 '카스테라' 등이다.

이번 전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2004년 작 전명관의 '고래'와 2005년 작 박민규의 '카스테라' 등 최근작들이다. 문학동네가 보여준 새로운 감각에 기반한 작품성은 전집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 눈길을 끈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학평론가 김형중 교수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 출간

문학평론가 김형중(47·조선대 국문과) 교수가 네 번째 비평집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문학과학사)을 펴냈다.

2008년 '단 한권의 책' 이후 5년 만에 펴낸 이번 비평집에는 총 3부, 31편의 글이 실렸다.

조지 모메로 감독의 영화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과 동일한 제목을 단 이번 평론집에는 '근대문학의 종언' 이후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학의 죽음을 바라보는 저자의 깊은 고민과 사색이 담겨 있다.

저자는 문학과 정치성 논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문학의 윤리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향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즉 한국문학에서 윤리 담론을 작품과 주선하려는 시도를 비

관하며 "모국어에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사고하게끔 하는 문학 그 자체의 힘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문학이 끊임없이 꿈을 거두고 숨 쉬고 있는 증거로 2000년대 후반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와 작품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김 교수는 "문학의 정치란 문학인이 혹은 문학 작품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은 교유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 그 자체"라며 문학에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와 윤리 문제를 지적한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글루 박주환